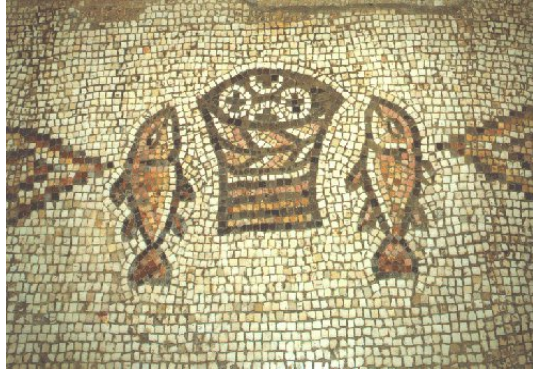


오병이어

타브가 (베드로 수위권 교회)

빵과 고기의 교회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먹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리 가져 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을 풀 위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열 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 가량 되었다. (마태오복음 14장 15-21절)

이 기적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산 산등에 흐르는 갈릴래아 강가 근처의 타브가라는 곳이었다. 이 이름은 아랍식의 그리스어인 "Heptapegon 즉 7개의 분수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곳에는 몇몇의 온천이 존재하는데, 한때 피부병 치료에 효험이 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했다. 오늘날 이 온천은 많은 양의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타브가는 두 가지의 잘 알려진 사건, 즉 빵과 고기들을 늘린 기적과, 부활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모습을 나타낸 것에 의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빵과 고기의 교회는 4세기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는 바로 그곳, 비잔틴교회 현대식 건물로 세워져 있다. 고대 교회는 6세기 지진으로 일부 손상되었으며, 1세기 후에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베네딕타의 승려가 이 장소를 재발견하기까지 이곳은 흔적도 추억도 잃어버린 곳이었다.

빵과 고기의 교회,

